

# 네일아트 자격증 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간의 연결망 분석

서란숙 (호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교수)\*

## 국 문 요약

본 연구는 창업의지가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간의 연결망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은 창업의지가 있는 네일아트 자격증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 변수 간의 연결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의 측정변수를 설정하고, 자료수집 후, 수집된 자료를 연결중심성, 고유벡터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일부 변수로는 긍정심리자본의 낙관성, 복원력, 희망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의도는 창업행동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달리 창업행동은 연결망 구조에서 거의 외곽으로 나타나 다른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심리자본에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간의 고유벡터 분석 결과, 가장 중심성이 높은 변수로 낙관성으로 나타났다. 즉, 예비창업자는 창업 시 고생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런데도 향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 창업행동, 긍정심리자본 간의 관계성을 연결망 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행동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해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향후 정부와 공공기관 또는 대학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비창업자의 창업행동을 높이는 관점에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핵심주제어: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 I. 서론

### 1.1 연구배경

일반적으로 창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그 무엇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또한, 창업자의 창업의도와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과 긍정적인 태도이다(Veciana et al., 2005). 심리학에서는 연구된 계획행동모델(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어떠한 행동의도는 미래의 목표 행동에 관한 계획적이고, 인지적 과정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하였다(Ajzen, 1985; 1991). 창업 또한, 하나의 의도와 행동으로 정신적 준비상태의 핵심 사항으로 어떠한 결과의 의도와 행동 간의 효과는 일정 수준의 관계가 있으면, 단기간의 행동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선호하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Sheeran, 2002).

창업자의 긍정적인 태도는 창업의도와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와 창업행동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국가적으로도 침체한

지역경제와 기업이 다시 회복하는데 예비창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Shapero & Sokol, 1982).

창업은 개인의 만족과 경제적 부를 창출하고 국가적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강영욱·하규수, 2013). 또한, 정부, 학교, 사회가 창업교육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창업자를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창업교육의 중요성에 관하여 관심이 높아졌다(Ronstadt, 1985). 창업교육은 미국, 유럽 등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강경균 외, 2015). 한국도 정부가 중심이 되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대상인 예비창업자는 조직과 규모, 시설과 자금 측면에서 기업보다 열악하고, 창업자 개인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창업 초기 단계에서 창업자의 능력과 보유기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김미진, 2014; 김춘근 외, 2014). 이러한 이유로, 창업자의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시작점은 예비창업자의 긍정심리자본에 따라 창업의도와 창업행동 간의 관계에서 접근하였다. 긍정심리자본

\* 저자, 호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교수, srs1001@daum.net  
투고일: 2020-11-01 · 수정일: 2021-01-11 · 게재확정일: 2021-02-05

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이라는 4가지 상대적 특성으로 자신의 변화와 발전을 할 수 있는 심리자원이다(최용득·이동섭, 2011; 최용득 외, 2012; Luthans, et al., 2007).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이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이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알고 있는 사람의 효용성과 가치를 넘어 자신이 실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잠재력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기능들이다(Luthans, et al. 2006; Luthans & Youssef, 2004).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 창업행동, 긍정심리자본 간의 연결망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예비창업자의 창업교육에 관하여 실무적이고, 학문적인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삶의 성공을 추구하는 긍정적 심리 상태이며, 긍정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긍정 행동의 심리적 토대에서 나온 개념이다(Avolio & Luthans, 2008). 긍정심리학은 삶의 나쁜 환경에 관한 심리를 치료하고자 하는 과거 심리학에서 벗어나 개인의 긍정적 심리를 변화시키고자 시작되었다(Seligman, 2000).

긍정심리학은 1998년 미국 심리학회 회장인 Seligman(2002)에 의해 제창된 심리학 중 하나이다. 그는 심리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심리학은 인간의 약점과 장애에 대한 학문만이 아니라 인간의 강점에 관한 학문이다. 진정한 치료는 손상된 것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것이다”라고 제안하며, 이러한 심리학을 긍정심리학이라고 하였다.

Sheldon & King(2001)은 긍정심리학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니는 강점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로 평범한 사람에게 빠르게 행동하며 삶을 향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과정이다.

긍정심리자본은 심리적 자원이론으로 개별적 심리 변수들이 다차원적인 심리를 구성할 때, 상호작용으로 더 큰 심리적 자원을 형성한다(Hobfoll, 2002). 이는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 등의 긍정적 개념들이 개별적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전체적인 심리적 자원으로 이해될 때 각 변수의 연관 작용이 더 잘 분석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동기부여이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박권홍, 2011; 임태홍, 2013; Luthans et al., 2007).

긍정심리 자본은 구성원들의 복합적이고 긍정적인 심리상태이며, 충동적이기보다 관리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하며, 연구개발에 개방적이고, 효과적인 작업을 위해 개선이 가능한 상태이다(Luthans & Youssef, 2004; Luthans et al., 2006). 긍정심리자본은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으로 구성되어 있

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구성 개념으로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와 창업행동과 함께 연결망 분석에 적용하였다.

### 2.2 창업의도

창업은 조직을 창조하는 과정이며, 창업의도란 개인에 의해 만들어 가는 첫 단계이자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창업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Veciana et al., 2005). 창업의도는 창업을 설명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또한, 창업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다(Carter et al., 2003).

사회심리학에서 의도는 행동에 대한 예측 이론에서 주로 계획행동모델(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통하여 이러한 가정을 증명하였다(Ajzen, 1991). 행동의도는 사회심리학에서 미래의 목표 행동에 관한 실행의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변수이다. 목표로 하는 행동에 대한 태도와 인지된 행동 통제력의 영향을 받게 되는 행동의도는 계획적인 행위이자 인지적 과정이다(Ajzen, 1991). 의도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정신적 준비상태의 핵심 지표로서 의도가 행동을 예측하고 일관성을 추정하는데 가장 좋은 변수이다(Sheeran, 2002).

창업의도는 예비창업자의 경제적 활력 재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데 필요한 회복력, 자기창조적 특성을 갖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Shapiro & Sokol, 1982). 또한, 경영자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은 창업의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Bird, 1988). 창업의도의 경력 지향성은 자신의 욕구, 동기, 재능, 태도, 가치 등이 어우러져 형성된 이미지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피드백 등을 통해 만들어 진다(Schein, 1996).

창업의도는 창업기업의 초기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하규수·윤백중, 2011). 또한, 창업의도는 회사에 고용과 달리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려는 욕구와 사업을 시작하려는 욕구로 정의한다(Bird, 1988; Krueger et al., 1994). 창업 연구와 관련된 연구에서 측정변수 중 창업의도가 가장 많이 이용될 만큼 중요한 변수이다(고봉호·신형철, 2018; 원상필·조근태, 2018; 이희승·정완규, 2019, Bird, 1988). 본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창업 의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창업의도를 활용하였다.

### 2.3 창업행동

앞서 논의한 창업의도는 선행되어야 창업행동으로 연결된다(Carter et al., 2003, Baron, 2009). 그런데도 일부 연구가 창업의도까지만 연구하거나, 창업의도를 제외한 연구가 있었다(이상화·하규수, 2015; 서성열 외, 2017; 선량·허철무, 2019). 창업행동은 창업과 행동에 관한 합성어로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임을 알 수 있다(Stevenson & Jarillo, 1990). 창업행동은 아이템 선정부터 사업화하는 전반적인 과정이다(Davidsson &

Henreksson, 2002; Davidsson, 2004).

창업은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성공적이지 않더라도 계속 노력하는 과정이다(Reynolds, 2007). 창업행동은 창업자의 창업에 관한 동기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김경화·김재석, 2010). 창업행동은 기회 발견과 기회 활용 행동으로 구분되며, 이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속성을 의미한다(임아름, 2015). 또한, 예비창업자의 창업행동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 의식이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김대업·성창수, 2013).

개인적 태도와 환경적 요인은 창업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hane & Khurana, 2003). 창업행동은 창업의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요인으로 긍정심리자본과 창업의도와의 어떠한 관계가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 III. 연구 방법

#### 3.1 자료수집

본 연구는 네일아트 자격증 학습자의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간의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각 변수 간의 관계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 11일~30일까지 20일 동안 미용사 국가 자격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최소한 3개월 이상 훈련 중인 수강자로 한정하였다.

설문조사에 앞서, 본 연구의 취지에 따른 조사 방법을 응답자에게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100명 기준으로 배포하였고, 불성실한 설문지가 발행할 경우, 해당 설문지 수만큼 추가 조사하여 유효한 설문지 100부를 확보하였다.

#### 3.2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간의 연결망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긍정심리자본의 측정변수는 Luthans & Youssef(2004), Luthans et al.(2007), 박권홍(2011), 임태홍(2013)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창업의도의 측정변수는 Krueger et al.(1994), Veciana et al.(2005), 원상필·조근태(2018)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창업행동은 측정변수는 Carter et al.(2003), Baron(2009), 임아름(2015), 원상필·조근태(2018)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각 측정변수는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연구하였다. 설문지로 조사된 자료를 연결망 구조에 맞게 마이닝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도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Netminer 4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곽기영, 2017). 분석에서 연결중심성과 고유벡터 분석을 통해 각 변수 의미와 연결구조를 제시하였다.

### IV. 실증분석 결과

####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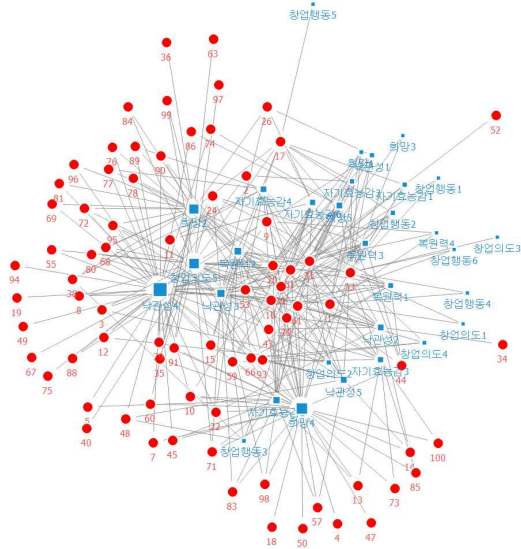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77%, 남성이 23%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5세 이하가 15%, 26세 ~ 30세 미만이 64%, 30세 이상이 21%로 나타났다. 창업교육수강 여부를 보면, 수료자가 32%, 미 수료자가 68%로 나타났으며, 창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 여부에서 소지자가 23%, 미소지자가 77%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상황을 보면, 상이 4%, 중이 54%, 하가 42%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조사대상은 여성이며, 20대 중후반이고, 창업교육 미 수료와 이와 관련된 자격증이 없으며, 경제적 상황이 보통 이하로 조사되었다.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내용	빈도(명)	퍼센트(%)
성별	여성	77	77.0
	남성	23	23.0
연령	25세 이하	15	15.0
	26 ~ 30세 미만	64	64.0
	30세 이상	21	21.0
창업교육수강	수료	32	32.0
	미수료	68	68.0
관련자격증	소지	23	23.0
	미소지	77	77.0
경제적상황	상	4	4.0
	중	54	54.0
	하	42	42.0

#### 4.2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간의 연결중심성 분석

예비창업자의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간의 연결망 분석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간의 연결망 분석 결과

첫째, “창업의도 5”를 중심으로 긍정심리자본의 “낙관성 4”, “낙관성 3”, “복원력 2”, “희망 2”가 위치하였다. “창업의도 5”는 “미래에 언젠가는 창업을 할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창업자의 창업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의도 5”의 주변 노드인 “낙관성 4”, “낙관성 3”, “복원력 2”, “희망 2”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희승·정완규(2019), 고봉호·신형철(2018)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창업의도는 창업행동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김대업·성창수, 2013; 원상필·조근태, 2018)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창업행동에 속한 변수는 거의 외곽으로 나타나 다른 노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연결망 분석에서는 창업행동과 창업의도는 중심성에서 벗어나 외곽에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는 두 변수 간의 관계 속성에 관한 연구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창업행동 2”를 중심으로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이 위치하였다. “창업행동 2”는 “나는 창업아이디어에 대해 친구 및 가족들과 논의한다.”라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창업행동이 중심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그나마 “창업행동 2”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 노드인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 4.3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간의 고유벡터 분석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간의 중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유벡터 분석을 하였다.

$$V_i = \sum_{j=1}^N C_j Z_{ij}$$

Cj:노드 j의 중요도이고, Zi:노드 i에서 j로의 연결하는 구조임

벡터 C는  $\lambda C = ZC$ 의 고유 방정식의 해를 의미한다. 가장 큰 고유값( $\lambda$ )에 해당하는 고유벡터로부터 고유벡터 중심성을 도출된 값이 고유벡터 중심성 값(ECV, Eigenvector Centrality Value)이다. 여기서 ECV가 높을수록 중심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간의 고유벡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표 2>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간의 고유벡터 중심값

순위	변수명	ECV	순위	변수명	ECV
1	낙관성4	.401	17	창업의도2	.110
2	창업의도5	.350	18	자기효능감1	.108
3	희망4	.348	19	자기효능감2	.096
4	희망2	.271	20	희망1	.095
5	낙관성3	.258	21	낙관성1	.088
6	복원력2	.251	22	창업의도4	.064
7	낙관성2	.214	23	창업행동1	.047
8	희망5	.206	24	희망3	.047
9	자기효능감6	.190	25	복원력4	.043
10	복원력3	.190	26	창업행동6	.040
11	자기효능감6	.183	27	창업행동3	.035
12	낙관성5	.181	28	창업의도1	.030
13	자기효능감4	.176	29	창업행동4	.030
14	복원력1	.167	30	창업의도3	.021
15	자기효능감3	.151	31	창업행동5	.011
16	창업행동2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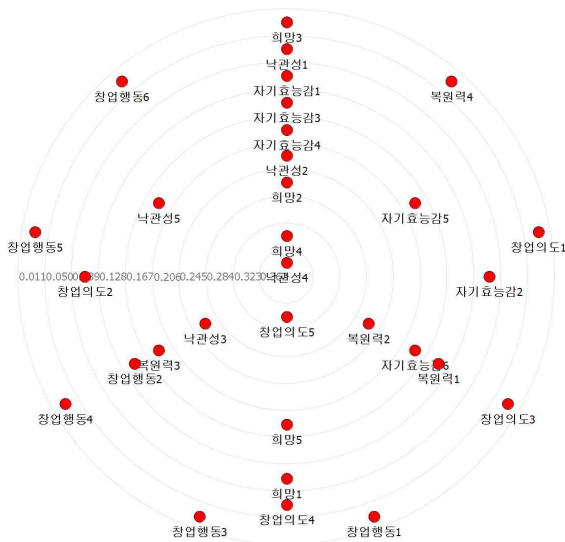
<그림 2>의 고유벡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높은 중심성을 나타난 것은 긍정심리자본의 “낙관성 4”(401)로 나타났다. “낙관성 4”는 “나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로 나타나 창업에 관하여 고생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중심성을 나타난 것은 “창업의도 5”(350)로 나타났다. “창업의도 5”는 “미래에 언젠가는 창업을 할 생각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창업자의 의지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예비창업자는 창업에 관해 고생을 염두에 두고, 불확실한 것에 긍정적인 믿음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3번째와 4번째로 중심성이 높은 것은 “희망 4”(348), “희망 2”(271)로 나타났다. “나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목표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로 예비창업자는 창업할 때 행복을 느끼면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번째로 중심성이 높은 것은 “낙관성 3”(258)으로 나타났다. 예비창업자는 “나는 일을 시작할 때 결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로 창업에 관한 태도에서 긍정적인 믿

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유벡터 중심성 값이 2.0 이상인 6, 7, 8번째로 중심성이 높은 것은 “복원력 2”(251), “낙관성 2”(241), “희망 5”(206)로 나타났다.



<그림 2>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간의 고유벡터 분석결과

고유벡터 중심성 값(ECV) 2.0 이상으로 분석하면, 예비창업자는 긍정심리자본의 낙관성, 희망, 복원력으로 일부 변수에서 높은 중심성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자기효능감은 낮은 중심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창업자는 앞으로 창업을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창업한다는 것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 자기효능감이 낮기 때문이다. 창업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교육이나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 V. 결론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업과 관련된 예비창업자 관련된 몇 가지 실무적이고, 학문적 기여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간의 연결망 분석방법을 통해 각 변수의 연결구조를 시각화하였다.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한 시각화된 자료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확장되어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의도 5”를 중심으로 긍정심리자본의 “낙관성 4”, “낙관성 3”, “복원력 2”, “희망 2” 등이 주변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의도5”의 주변 노드인 “낙관성 4”, “낙관성 3”, “복원력 2”, “희망 2”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희승·정완규(2019), 고봉호·신형철(2018)의 분석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를 높이는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하였다.

둘째, 창업의도는 창업행동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김대업·성창수, 2013; 원상필·조근태, 2018)와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 창업의도를 중심으로 창업행동은 외곽에 있어 두 변수 간의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증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원상필·조근태(2018)의 분석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셋째, 창업행동을 중심으로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이 근접하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증명하였다.

넷째,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간의 고유벡터 분석 결과, 가장 중심성이 높은 변수는 “낙관성 4”로 나타났다. 예비창업자는 창업 시 고생을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런데도 창업에 관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창업을 바로 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난 후에 창업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창업자의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창업행동 간의 관계를 연결망 분석으로 시각화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둘째, 창업의도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긍정심리자본으로 접근하여 연구하였다. 셋째, 창업과 관련된 실무자가 쉽게 해석할 수 있게 연구결과를 이미지로 시각화하여 독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논의를 도출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의 빅데이터나 SNS를 통한 자료 분석이 아닌 설문지를 통한 분석으로 전체 예비창업자의 속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예비창업자의 속성에 따라 창업보다는 취업에 관점에서 본 연구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성이 있다. 앞으로는 빅데이터 분석 중 정형인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사진, 동영상 등 형태의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비창업자에 관한 심리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

강경균·이춘우·김주영(2015).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II*.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1-162.

강영욱·하규수(2013). 소상공인 창업자특성과 창업준비과정이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자기효능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0(9), 239-251.

고봉호·신형철(2018). 특급호텔 외식종사원의 창업의도 및 행동 연구: 계획행동이론의 확장을 적용하여. *관광경영연구*, 86(0), 19-39.

곽기영(2017). *소셜네트워크 분석*. 서울: 청람.

김경희·김재석(2010). 창업동기요인이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재이용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e-Learning System 참여자를 중심으로. *e-비즈니스연구*, 11(2), 209-228.

- 김대업·성창수(2013). 잠재적 창업가의 예비 창업행동과 사회적 책임의식 간의 관계 :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35(1), 25-46.
- 김미진(2014).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경기지역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김춘근·이충석·김진수(2014). 기술창업기업 초기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연구*, 57, 63-86.
- 박권홍(2011). *공정심리자본과 리더십 성과*. 박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서성열·윤종록·김광민(2017). 청년 창업지원시스템이 대학생의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 창의성의 조절효과 검증. *전문경영인연구*, 20(4), 527-546.
- 선량·허철무(2019). 예비청년창업가의 창업동기가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 : 창업효능감과 기업가지향성의 매개변수의 효과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1), 117-137.
- 원상필·조근태(2018). 정부와 대학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기술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 기업가정신과 4차 산업혁명 인식의 매개효과. *한국창업학회지*, 13(2), 1-28.
- 이상화·하규수(2015). 창업가정신, 창업역량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플로우(Flow)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0(5), 137-150.
- 이희승·정완규(2019). 피아노 학원(교습소)의 창업 위험인식이 창업 의도 및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음악교수법연구*, 20(2), 195-215.
- 임아름(2015).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행동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임태홍(2013). *운동이 공정심리 자본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최용득·이동섭(2011). 공정심리자본의 효과. *한국인사조직학회 발표논문집*, 74-100.
- 최용득·정홍준·이동섭(2012). 리더의 유머사용과 구성원의 성과 및 행복 : 리더신뢰의 조절효과와 공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경영학연구*, 41(3), 575-605.
- 하규수·윤백중(2011). 대학생의 창업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2(8), 3406-3414.
- Ajzen, I.(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Action control. Springer, Berlin, Heidelberg.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volio, B., & Luthans, F.(2008). *The high impact leader*. McGraw Hill Professional.
- Baron, R.(2009). The Role of Affect in the Entrepreneurial Proces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3, 328-340.
-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 Carter, N., Gartner, W., Shaver, K. G., & Gatewood, E.(2003). The career reasons of nascent entrepreneu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1), 13-39.
- Choi, Y. D., & Lee, D. S.(2011).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Korean Academy Of Management presentation thesis book*, 74-100.
- Choi, Y. D., Jung, H. J., & Lee, D. S.(2012). Leader's Use of Humor and Employees' Performance and Work Happiness : The Moderating Role of Trust in Leader and the Mediating Rol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Korean Management Review*, 41(3), 575-605.
- Davidsson, P., & Henreksson, M.(2002). 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the prevalence of startups and high-growth firms : Evidence from Sweden. *Small Business Economics*, 19(2), 81-104.
- Davidsson, P.(2004). *Researching Entrepreneurship*. New York: Springer.
- Ha, K. S., & Yeon, B. S.(2011). Recognition of Business Failure and Succes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8), 3406-3414.
- Hobfoll, S. E.(2002). Social and psychological resources and adapt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6(4), 307.
- Kang, K. K., Lee, C. W., & Kim, J. Y.(2015). Study on Measures to Develop Entrepreneurship Education Model and to Encourage start-up for Youth. *Korea Youth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1-162.
- Kang, Y. Y., & Ha, K. S.(2013). Characteristics of Small Business Start-Up and Effect of Preparation of Small Business Start-up on Business Performance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9), 239-251.
- Kim, C. S., Lee, C. S., & Kim, J. S.(2014).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Early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Start-ups.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57, 63-86.
- Kim, D. U., & Sung, C. S.(2013). Relationship Between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ial Nascent Behavior and Inten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 Focus on Meister School Students. *Small and Medium Business Research*, 35(1), 25-46.
- Kim, K. H., & Kim, J. S.(2010). The Effect of Motivation on Satisfaction & Reuse, Recommended Intention Among Entrepreneurial Start-up Program : Focused on Participant of e-Learning System. *The e-Business Studies*, 11(2), 209-228.
- Kim, M. J.(2014). *Support Programs for Business Performances of Small Enterprises : Focusing on Gyeonggi Area*.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 Ko, B. H., & Shin, H. C.(2018). A Study on Deluxe Hotel Foodservice Employee's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Behavior: By using Extension about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86(0), 19-39.
- Krueger, R. F., Schmutte, P. S., Caspi, A., Moffitt, T. E., Campbell, K., & Silva, P. A.(1994). Personality traits are linked to crime among men and women: Evidence from a birth cohor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2), 328-338.
- Kwak, G. Y.(2017). *Social network analysis*. Seoul: Cheongram.
- Lee, H. S., & Chung, W. K.(2019). The Influences of Entrepreneurial Risk Recogni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Behavior. *Research in Music Pedagogy*, 20(2), 195-215.

- Lee, S. H., & Ha, K. S.(2015).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Competency on Entrepreneurial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Flow Experie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5), 137-150.
- Lim, A. R.(2015). *The effect of youth entrepreneurs'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entrepreneurial performanc.*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 Lim, T. H.(2013). *Effect of Exercise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ejong University.
- Luthans, F., & Youssef, C. M.(2004). Human, Social, and Now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anagement: Investing in People for Competitive Advantage. *Organizational dynamics*, 33(2), 143-160.
- Luthans, F., Vogelgesang, G. R., & Lester, P. B.(2006). Developing the psychological capital of resiliency.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view*, 5(1), 25-44.
- Luthans, F., Youssef, C. M., & Avolio, B. J.(2007). *Psychological capital.* Translation of Kim, G. H., Kim, J. G., & Park, S. M.(2012).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oul: Lux Media.
- Park, K. H.(2011).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dership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Graduate School.
- Reynolds, P. D.(2007). New firm creation in the United States: A PSED 1 overview. *Foundations and Trends in Entrepreneurship*, 3(1), 1-150.
- Ronstadt, R.(1985). The Educated Entrepreneurs: A New Era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Beginning.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1(4), 7-23.
- Schein, E. H.(1996). Career anchors revisited: Implications for career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0, 80-88.
- Seligman, M. E. P.(2002). *Authentic happiness.* Translation of Kim I. J.(2006). Positive Psychology, Seoul: Mulpure.
- Seligman, M. E.(2000). The positive perspective. *The Gallup Review*, 3(1), 2-7.
- Seo, S. Y., Youn, J. R., & Kim, K. M.(2017). The Effects of Young Startup Support System for Start-Up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 Creativity as a Moderator. *Journal of CEO and Management Studies*, 20(4), 527-546.
- Shan, L., & Heo, C. M.(2019). Effects of Entrepreneurship Motivation on Entrepreneurial Opportunity Competence in Preliminary Young Entrepreneur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Efficacy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1), 117-137.
- Shane, S., & Khurana, R.(2003). Bringing individuals back in: the effects of career experience on new firm founding.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2(3), 519-543.
- Shape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heeran, P.(2002). Intention-behavior relations: A conceptual and empirical review.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2(1), 1-36.
- Sheldon, K. M., & King, L.(2001). Why positive psychology is necessary. *American psychologist*, 56(3), 216-217.
- Stevenson, H., & Jarillo, J.(1990). A Paradigm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Management, Management Journal*, 11, 17-27.
- Veciana, J. M., Aponte, M., & Urbano, D.(2005).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entrepreneurship: A two countries comparison. *The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2), 165-182.
- Won, S. P., & Cho, K. T.(2018). The Effects of Business Incubator Programs of Government and Universities on College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Technology Start-Ups: Entrepreneurship and Percep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the Mediator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3(2), 1-28.



##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tart-Up Intention, Start-Up Behavior Option Network Analysis

Ran-Sug Seo\*

### Abstract

This study studied the network between positive psychology capital, intention of start-up, and start-up behavior for learners who are willing to start a business. The research targets were intended to study the impact of the connection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 targeting nail art certification learners who are willing to start their own businesses. For this study, the measurement variables of positive psychology capital, intention of start-up, and start-up behavior were set,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or connection-centeredness and eigenvector after data collectio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ome variables affecting the intention of start-up showed optimism, resilience and hope of positive psychology capital. Second, the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behavior of start-ups, which, unlike the preceding study, appeared to be almost outside the network structure, showing that the behavior of start-ups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other variables. Third, it is important to increase self-efficacy i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order to increase the behavior of start-ups. Fourth, the analysis of the eigenvector among positive psychology capital, intention of start-up, and start-up behavior showed optimism as some of the most central variables. In other words, prospective start-ups were found to be aware of the hardships and expected positive results in the futur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long with the intention and behavior of prospective entrepreneurs, are important factors in positive psychology capital, and suggest the importance of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that can be enhanced by positive psychology capital in start-up education or training programs and what should be taught.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network by approaching it from the perspective of positive psychology capital of prospective entrepreneurs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support programs for start-ups by the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s or universities in the future.

*KeyWord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tention of Start-up, Behavior of Start-up*

---

\* Professor, Department of Airline Service at Hoseo University, srs1001@daum.net